

새 책

▶**퀴린틴**(김어제 지음)=뉴욕의 한국인 부부가 코로나19를 직접 겪으며, 검사도 치료도 받을 수 없는 미국의 의료 상황 속에서 해열제만으로 이겨낸 생존기다. 어떻게 살아냈는지, 어떤 약과 음식을 먹었는지, 부부 중 간호를 도맡은 쪽은 어떻게 확진자를 관리했기에 감염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다. 또 적나라한 미국의 의료실태, 사재기, 종교 근본주의, 인종차별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목소리도 담았다. 마음의숲, 1만5000원.



▶**기상 예측 교과서**(후루카와 다케히코·오키 하야토 지음)=이 책은 기상학자의 전문성과 저널리스트의 유려한 글솜씨가 만나 탄생했다. '비는 왜 내릴까?', '구름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라는 기초적인 질문을 시작으로, 복잡해 보이는 기상학을 차근차근 설명해나간다. 이를 통해 어린 시절 품었던 날씨에 대한 의구심과 호기심을 해결해 주는 것은 물론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날씨의 정체를 밝혀준다. 보뉴스, 1만5800원.



▶**조선세프 서유구의 과자 이야기 1** 밀천과편(풍석문화재단 음식연구소 지음)=조선 후기 대표 실학자인 풍석 서유구의 대표 저작 '임원경제지'의 여덟 번째 지(志)인 '정조지' 가운데 과자총서라고 할 만한 '과정지류' 중 일부를 연구해 복원한 책이다. 총 42가지 전통음식을 복원해 수록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8가지 음식을 현대화한 내용을 담았다. 자연경실, 2만원.



▶**짜맛춤의 정석**(마크 스파누올로 지음·안형재 옮김)=이 책은 간단한 상차부터 18세기 하이보이 수납장까지 모든 목공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필수 짜맛춤들을 소개하고 있다. 다섯 가지 필수 짜맛춤은 맞짜임, 턱, 다도, 흠짜임, 장부짜임, 바턱과 기름장짜임, 주먹장짜임이다. 자세한 사진과 전문적이면서도 쉬운 설명을 초보자도 전문가도 모두 목구구 제작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으로 평가된다. 모눈종이, 2만5000원.



▶**열두 살 해녀**(김신숙 지음·박동 그림)=시인으로, 문화기획자로, 작은책방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신숙 시인의 첫 동시집이다. 우도에서 태어나 열두 살에 해녀가 된 어머니의 구슬을 바탕으로 지은 93편의 시가 담겨 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해녀 할머니 이야기가 너무 귀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동시 속에는 실제 경험에서 나온 생생한 이야기와 입말이 주는 정감이 가득하다. 한그루, 1만5000원.



▶**책 너는 날**(김주현 지음·강현선 그림)=여로부터 긴 장마와 무더위의 끝 무렵에 책과 웃가지, 살림살이를 내어 햇볕을 쬐고 바름을 써야 열리는 풍속이 있었다. 음력 7월 7일에 행해지던 이 풍속을 '썩소포의'라고 했다. 이 책은 썩소포의 풍속을 행하던 옛사람들의 고즈넉한 풍경을 담은 그림책이다. 사계절, 1만3000원.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지구 운명을 좌우 '인간의 시대'에 대한 경고

EBS 다큐프라임 제작팀의 '인류세…'

지구 축소판 봉인섬 등 취재 열종의 길 생물에 우리 모습

백만 년, 천만 년의 시간을 다루는 지질시대 단위의 세. 이 앞에 인류가 놓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노벨화학상 수상자 파울 크뤼첸은 2000년에 열린 한 과학회의에서 '인류세(人類世)'의 개념을 제안한다. 그는 이 용어를 통해 20만 년 전 등장한 인류가 화산 폭발, 빙하기와 맞먹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지게 되었음을 경고하려 했다.

국내 다큐멘터리팀이 인간의 활동이 46억 년을 버티는 지구 환경을 바꾸는 지질 시대를 일컫는 인류세의 현장을 찾아나섰다. 최평순 PD와 EBS 다큐프라임 제작팀이 엮은 '인류세: 인간의 시대'에 그 여정이 있다.

신종 전염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 장마가 끝나지 않을 때, 전에 본 적 없던 규모의 태풍이 닥

칠 때 사람들은 인류세를 이야기한다. 불과 수십 년 만에 인간은 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됐는데 이는 곧 우리 자신의 운명까지 포함하는 말이다.

제작진은 2년에 걸쳐 말레이시아 정글, 하와이, 캘리포니아 해변, 영국 등 10개국을 누비며 인류세의 자연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있는지 들여다봤다. 그 과정에 '지구를 일억분의 일로 축소한 미니어처'인 인도네시아 봉인섬을 취재했다. 봉인섬은 인구 밀도가 높은 섬으로 9ha 면적에 3400여 명이 살아간다. 그곳은 파괴적인 남획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산호 훼손으로 어획량이 점점 줄고 있다. 좁은 땅에 인구가 폭증하고 마을이 무질서하게 확장되면서 재난재해에도 취약해졌다. 대책없이 쓰레기를 버리는 탓에 근해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꽂혔다.

대한민국이라고 다르지 않다. 도쿄, 런던, 뉴욕 등 21세기 현대



도시들처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 안에서 대량 생산된 것을 먹고 입고 쓰며 생활한다. 위험 신호는 예전부터 있었다. 생태계 교란, 오존층 파괴, 온실효과, 생물다양성 감소 등 국가 차원의 규제만이 아니라 유엔 주도도 국가 간 협력이 논의되고 진행됐다. 그럼에도 변한 것은 없고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바다거북, 개발로 변형된 정글의 생태계에서 서서히 멸종의 길을 걷고 있는 오랑우탄의 얼굴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모른다. 결국 '인간이란 무엇일까'를 물어야 할 때다. 해나무, 1만65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서로에게 침묵하는 목적자가 안 될 용기

이라영의 '폭력의 진부함'

그의 복기는 1980년대 중후반에 시작돼 2018년까지 닿는다. 그 과정에서 중학교 시절 겪은 최초의 성추행을 나이 서른이 넘어 인지할 정도로 일상의 폭력이 어떻게 우리의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지 드러낸다. 폭력과 차별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버스에서, 지하철 안에서, 대학에서, 동아리에서, 지인의 집에서, 사무실에서, 출장지에서 무시로 일어났다. 개인적 사건들을 개인적으로 부를 수 없는 이유다.

예술사회학연구원 이라영의 '폭력의 진부함'은 성폭력뿐만 아니라 사회의 많은 차별과 폭력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벌어지는 일상적 현상임을 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적

인 역사를 복기한 뒤 사회적 사건들을 분석했다. 그는 폭력을 보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사회의 약자와 소수는 '보이지 않는 인간'이 되었다고 했다. 폭력을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으로서의 인격'을 박탈당한 이들이 보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폭력에 맞서는 개개인의 발화 중요성을 강조하는 저자는 19세기 미국의 노예제 폐지 운동가 프레더릭 더글러스를 불러왔다. 어린 시절 노예였던 더글러스는 나이가 몇인지, 부모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더글러스는 피지배자 자신이 스스로 누구인지 모르게 만드는 지배 권력에 저항하면서 적극적으로 초상을 남겼다. 당당하게 카메라를 응시하는 더글러



스의 사진은 소수자로서의 수치심을 떨쳐버리려는 실천이었다. 자기 이야기의 주인이 되기 위해 살아있는 이들은 목소리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직접 설명하지 못하는 고통은 타자화되어 해석당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려 하고, 이름 없는 자의 이름을 부르자. '우리'는 서로에게 침묵하는 목적자가 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갈무리, 1만8000원.

진선희기자

이 책 김찬수의 '알타이 식물 탐사기' 42종 한라산 특산식물 혈연을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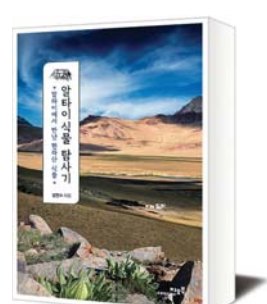
사진 왼쪽부터 알타이미나리아재비, 한라산 구름미나리아재비, 몽골 쓴분취, 한라산 은분취.

망망대해 솟아오른 화산섬 한라산에 어떻게 오늘날의 식물상이 만들어졌을까. 대내야열대산림연구소장으로 공직을 마치고 30년 넘게 식물과 살아온 김찬수 박사(사단법인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이사장)는 오래도록 이룬 궁극증을 가졌다. 그가 한라산 식물의 고향이 과연 어디인지를 탐색한 끝에 다다른 곳은 머나먼 알타이다. '알타이에서 만난 한라산 식물'이란 부제를 단 '알타이 식물 탐사기'는 그 여정을 담고 있다.

김찬수 박사는 2009년 헨티 초원을 시작으로 20회에 걸쳐 몽골 전역의 식물 탐사를 벌였다. 몽골 알타이 식물을 연구하며 점차 한라산 식물의 기원을 밝히는 일에 빠져들었고 울란바토르 서쪽 고비알타이 지방의 알타이시를 지나 알타이산맥 동쪽 호브드 지방의 알락 할르한산, 호브드시, 읍스 지방의 하르히라산까지 발걸음이 닿았다.

이 탐사를 통해 한라산 정상 일대 46과 146종의 주극

아시아 식물 중 분화 중심지 알타이 현지 유연관계 관찰 빙하기 확장 뒤 적응해 진화



고산식물이 알타이와 중앙아시아에도 적지 않게 분포한다는 걸 확인했다. 특히 한라산 정상 일

대에만 자생하는 42종의 특산식물(고유종)과 유연관계에 있는 종들을 알타이에서 관찰했다. 알타이는 '아시아 식물 중 분화의 중심지'였던 것이다.

저자는 이번 탐사에서 국명이 없는 알타이식물에 그 생김새와 유래에서 따온 우리말 이름을 붙였다. 알타이미나리아재비, 알타이분취, 알타이송이풀, 연노랑송다리 등 31과 124종에 이른다.

한라산에 자란다고 해서 한반도나 한라산에 고립적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니다. 어떤 종들은 알타이와 연속적인 분포를 보이고, 어떤 종들은 환경이 갖춰진 곳에 따라 점점이 징검다리처럼 흩어져 있었다.

몽골 거의 전 지역에서 보이는 쓴분취는 한라산 은분취와 많이 닮았다. 알락 할르한산의 알타이분취는 고산기후에 적응해 마치 양배추처럼 자라 있었다. 알타이의 알타이미나리아재비와 비슷한 한라산의 구름미나리아재비는 한 반도를 건너뛰어 한라산 고지에만 있다. 빙하기에 제주도까지 영역을 확장했다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종으로 추정된다. 한라산에만 분포하는 한라송다리 역시 알타이에서 나와 수만 년에 걸쳐 영역을 넓히다가 한라산 환경에 맞게 진화한 것으로 봤다. 지오북, 2만4000원.

진선희기자

축 CONGRATULATIONS

취득

간호학박사



오지혜
부: 오순호 · 모: 강윤숙

가톨릭대학교 간호학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아빠형제 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상

새농민상



이석근·박유미 부부

제55회 새농민상 본상에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수상을 축하하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농업마이스터대학 친환경과수 1전공

축 CONGRATULATIONS

취득

공학박사



이재형
(부: 이도일 · 모: 박명순)

고려대학교 공학박사(전기전자파공학)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otary 국제로타리 3662지구 총재지역대표 및 사무차장 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임

대한직장인체육회 제주도회장



부창우
(본회 8대 회장 역임)

대한직장인체육회 제주도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시 노형·연동애월읍청년회
회장 강동완 외 회원일동